

동학농민운동과 민요 '새야 새야'



1894년, 전라도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은 자신의 아버지 비석을 세우고, 필요 없는 저수지 공사와 물 사용료로 백성들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죄를 씌우고 벌 대신 세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화가 난 백성들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조병갑을 혼내주었고, 관아에 있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하고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전국의 수많은 동학 농민들이 모였고 이를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동학농민운동 때 불려진 대표적인 민요로 '새야 새야'가 있습니다. 노랫말 속 '파랑새'는 파란 군복을 입은 일본군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녹두콩만큼 키가 작았던 전봉준에게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노랫말 속 '녹두밭'은 녹두장군 전봉준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청포 장수'는 동학농민군과 백성을 의미합니다.

동학농민운동과 민요 '새야 새야'의 노랫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새야 새야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 밭에 앉지 마라
 녹두 꽃이 떨어지면
 청포 장수 울고 간다